“협력업체 경쟁력 높아져야 성장 보장”

대기업-中企 ‘상생 경영’ 확산

삼성· 현대·기아차, 기술이전 등 추진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 기술개발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대기업의 성장도 보장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상생경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월 7일 8천억원 사회환원 등 사회공헌 확대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삼성이 내놓을 대책에는 대금 현금결제나 기술이전, 금융지원 등 ‘전통적인’ 방안 이외에 경영기법 전수, 정보공유, 임직원 파견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그러나 최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재벌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이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발표시기와 형식·내용 등을 결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오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회의 직후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적당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재계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비록 비자금 수사에 따른 사회공헌방안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달 25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중소 협력업체에 60일어음으로 지급하던 내수부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금액은 3조3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당초 2010년까지 13조원으로 계획된 협력업체의 자금지원을 15조원으로 늘리고 지원금중 2조6천300억원은 기술개발자금에 집중할 계획이다.

원가절감 성과 50% 환원

현대·기아차는 아울러 부품 경쟁력 향상기금 500억원 조성과 협력업체 교육훈련 확대(1만3천명→2만명), 원가절감 성과의 50% 협력업체 환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도 올해 투자사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2조7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구매와 판매, 연구개발, 인력양성, 금융 등 전 부문에 걸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한다. 포스코는 설계 발주 때부터 중소기업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을 찾아 구매하고 최저낙찰제를 개선해 가격외에 기술력과 품질 등을 고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포스코는 또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자재에 이어 외주 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인력 양성을 위해 미활용 특허를 이전하고 포항·광양지역 63개 공급사를 대상으로 직무 노하우 온라인 교육도 지원한다.

LG는 기업 경영환경이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협력사를 포함한 기업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다.

LG는 ▲공동기술 개발, 해외 동반진출 등 기술지원 ▲현금성 결제, 네트워크론 확대 등 자금지원 ▲경영혁신과 전문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무상교육 등 교육지원 ▲중견인력 이동제 시행 등 인력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SK는 협력업체 현금결제를 지난해 2조7천억원에서 올해 3조5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결제기간도 1~2주에서 3~7일로 단축시켰다.

또한 SK㈜와 SK텔레콤 등 2개사에 이어 SK해운, SK가스 등 총 17개 회사가 추가로 현금결제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현금결제 제도 도입 확대

CJ는 품질·기술·원가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협력업체를 선별해 현장 컨설팅, 기술·경영 개선기법 전수, 종업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식품원료, 포장재, 설비 등을 공급하는 우수 협력업체 40여개를 ‘CJ 파트너스 클럽’으로 묶어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두산도 시중은행과 네트워크론 업무계약을 체결해 협력업체의 납품실적만으로 저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며, 롯데는 자금·기술·인력·성과공유 등 5대 상생협력 과제를 세워놓고 계열사별로 실천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산업활동 양극화 심화

대기업-中企 격차 더 벌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산업활동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간한 ‘중소기업위상지표’에 따르면 2003~2005년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전년대비 증감률은 각각 3.1%, 5.2%, 0.2%를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에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전년에 비해 7.0~14.1%가 증가,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증가율보다 배 이상 높았다.

출하지수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3.9%(2003년)→5.8%(2004년)→0.3%(2005년)에 머무를 때 대기업은 5.1~11.2%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중소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3~4.2%에 그쳤던 2003~2005년에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1.2%~12.5%로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단위노동비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눠 산출) 부담이 더 커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활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2003년 71.3%였던 전체 부가가치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율이 2004년에는 30.7%로 급락했으며 대기업의 기여율은 반대로 28.7%(2003년)에서 69.3%(2004년)로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중국 등 경쟁국의 급부상, 내수시장의 한계 등으로 2001~2002년 다소 축소됐던 대·중소기업간의 산업활동 양극화 현상이 2003년 이후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하반기 부동산 값 결정 7대 변수

정부발 부동산 거품(버블)론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정부와 시장간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전문가조차 현재의 집값이 꼭짓점이고 일부 거품이 끼었다는 점에 동조하면서도 실제 집값 하락여부·낙폭·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집을 장만하려는, 또는 팔려는 소비자들을 당혹케 한다.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7대 변수들을 꼽아 봤다.

정부-시장 ‘부동산 거품’ 힘겨루기

세금폭탄·금리 인상 가장 큰 변수

① **세금폭탄**=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보유세제 강화방안이 7월 재산세 고지분부터 현실화된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50%씩, 토지분은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6.4%, 표준지 공시지가는 17.81%나 각각 상향 조정돼 고가 중대형 주택, 토지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② **판교 8월 중대형 분양**=수도권 최고의 입지로 주목받는 판교신도시 8월 중대형 분양도 집값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급물량이 7천164가구에 불과한데다 상당수 청약통장가입자들이 ‘판교입성’을 기다려온 만큼 그 열기는 4월 중소형 분양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여름 이사철 수요**=최근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거품 붕괴론의 근거중 하나는 매매동향이다. 그러나 시장은 최근 거래 및 집값 상승률 둔화가 통상적인 이사 비수기 탓이며 여름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 집값이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금 및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정부가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도입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7월, 9월부터 시행되는 점도 집값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다.

200㎡이상 건물 신·증축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규모는 주택의 경우 500만~5천만원이나 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⑤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인 9~36%이지만 내년에는 50%로 올라가는 데다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45%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2주택자가 5년전 6억8천1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이 10억원에 도달한 상태에서 내년에 매각했다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2억8천만원에 대한 세부담은 1억3천700만원에 이른다.

⑥ **금리**=현상태로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 국내경기 위축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추가 금리인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적지 않아 앞으로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결정은 불가피한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⑦ **경기동향**=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국내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고 있다.

주력 품목의 수출이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1·4분기에 수출업체 수가 작년동기보다 1천개 가까이 감소하는 등 내용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여름 유행 화장법

21일 서울 회현동 신세계 본점에서 열린 ‘2006년 유행 메이크업쇼’에 참가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올 여름 유행할 화장법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정은-정몽준 입장차만 확인

故 정세영 회장 1주기 회동 현대경영권 분쟁 장기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정몽준 의원과 지난 20일 만난 자리에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 회장은 21일 인천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남 조원태 부장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상선 지분 매입이 적대적 M&A가 맞느냐”는 질문에 “(적대적) M&A가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현 회장은 현대상선 문제가 가족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개인의 욕심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없다”고 답해 전날 저녁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정몽준 의원과의 만남이 순탄치 않았음을 내비쳤다.

현 회장은 20일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1주기 제사 자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 근 한달만에 정 의원과 마주쳤었다.

그러나 현 회장은 가족 제사에서 정 의원과 나눈 대화에 대해 “상선 문제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고 답해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경영권 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나누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현 회장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곧 찾아뵙겠다”고 답해 조만간 정 회장을 만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현 회장이 정 회장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당사자인 그는 ‘집안 어른’인 정회장을 면회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

상위 10%의 근로 소득

하위 10%의 무려 44배

소득 최상위 10% 계층과 최하위 10% 계층의 근로소득 격차가 확대돼 40배를 넘어섰다.

21일 통계청의 2006년 1·4분기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491만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계층 11만2천원의 43.8배에 달했다.

이런 격차는 지난해 1·4분기의 38.8배보다 훨씬 확대된 것으로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4분기 이후 가장 크다.

1·4분기 기준으로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 격차는 2003년 35.1배에서 2004년 34.8배로 소폭 축소됐지만 2005년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1·4분기에는 대기업의 성과급, 상여금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소득 임금근로자가 많은 상위 계층과 하위계층간의 근로소득 격차가 다른 분기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들은 이어 “10분위는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60% 안팎에 달하지만 1분위의 근로소득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해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 격차가 다른 소득에 비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페어리디킨슨대 ‘영광스러운 동문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수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미국 페어리디킨슨 대학이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했다고 현대그룹이 21일 밝혔다.

이 상은 페어리디킨스 대학 졸업생 중 사회발전에 공헌한 졸업생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으로,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라고 현대그룹은 설명했다.

마이클 아담스 총장은 “현정은 회장은 고 정몽헌 회장의 사업 유지를 이어 여성 CEO로서 한국적인 경영자상을 만들어 가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현 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은 페어리디킨슨 대학에서 함께 수학했으며 지난 1983년 인간개발학(Human Development)과 경영학(MBA)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작년 대졸 취업자 평균연령 28.2세

지난해 취직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령은 28.2세, 평균학점은 3.55점(4.5만점), 토익점수는 700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출신학교는 서울소재 대학교가 43.9%, 지방소재 대학교가 54.9%로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종업원 100인 이상 3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평균 연령은 28.1세, 학점은 3.52점이었다. 또 지방소재 대학교 출신비율이 64.8%, 토익은 700점대가 3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면접전형에서는 업무관련지식(20.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8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4	21	23	32	40	45		44
등 위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941,763,300
2등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80,906,805
3등	5개 숫자 일치						1,574,829
4등	4개 숫자 일치						64,046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4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10억	4조	808430
2등	5억원	4조	808429
		4조	808431
3등	1천만원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등	1백만원	각조	22314
5등	1만원	각조	915
6등	2천원	각조	39
		각조	99
7등	1천원	각조	3
		각조	6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진 어소시에이츠	광주신세계 이마트오픈-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4	062-360-1058
씨큐어넷	시설관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24	062-364-7955
중산종합조경㈜	조경기사 및 조경기능자 현장 및 사무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5	011-628-2378
㈜주신전자	영업/상품입출고/배송업무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25	062-941-3852
이지원	디자인개발/웹디자이너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5/25	062-233-1003
대한생명보험㈜	2006년 신입 및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3,200~3,400	05/26	011-9620-6805
㈜옵토닉스	전자회로 설계 및 개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7	062-973-1260
대명하이텍㈜	자재담당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27	062-953-6444
㈜휴로넷	[주5일]SK텔레콤[광주]114 / CRM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27	02-780-9595
미주아카데미	마케팅 담당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225-5708
㈜오투텍	세무/회계 여사원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5/31	062-946-1114
하나 C.T.P	인쇄용 C.T.P / 필름 출력실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222-994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